http://dx.doi.org/10.16874/jslckc.2024..71.016

중국 대학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课程思政) 연구의 현황 및 과제

유소소* · 전패영**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의 개념 및 내용
   2) 외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관련 연구 동향
3. 연구 방법
   1) 분석 절차 및 대상
   2) 분류 기준 및 방법
4. 분석 결과 및 논의
   1) 연도 및 과정별 연구 현황
   2) 주제별 연구 현황
   3) 언어 기능, 언어교육 요소 및 학습자 수준별 연구 현황
5. 결론 및 제언

국문초록

최근 중국 대학에서 '교과목 사상정치교육(课程思政)'을 구축하자는 일련의 정책이 발표되면서 사상정치교육과 외국어교육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통합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국 외국어교육계 공통의 관심사로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과 중국에서 발표된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관련 연구물 총 136건을 수집하여 연도별, 과정별, 주제별, 언어 기능별, 언어교육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제1저자)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공동저자)

www.kci.go.kr

요소별, 학습자 수준별로 연구 현황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연구는 2022년까지 매년 뚜렷한 양적인 성장을 이루다가 최근 들어 주춤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의 연구 과제로는 다음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교양, 제2외국어, 중외합작 교육기관의 과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 이론적 연구와 실태 조사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 관리와 인재 양성의 방안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셋째, 사상정치교육 콘텐츠를 교육내용으로 선정하여 논리적으로 조직하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넷째, 연구 주제로서 교재, 평가, 교사 요인, 학습자 요인 등은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다섯째, 특정한 언어 기능을 연계한 연구와 자국 문화, 세계 문화, 그리고 (통)번역, 문학, 어휘 등 언어교육 요소를 다룬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에 따른 사상정치학습 양상을 살피는 연구가 전면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키워드: 교과목 사상정치교육(课程思政), 외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外语课程思政), 중국의 외국어교육 정책, 중국 대학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 현황 및 과제

1. 서론

중국 대학의 '교과목 사상정치교육(課程思政)'이란 중국의 모든 대학, 모든 학과, 모든 전공의 교과목에 걸쳐 전공교육에 사상정치교육[1]을 융합시킴으로써 다각적으로 '입덕수인(立德樹人, 덕을 갖춘 인재를 양성함)을 실천한다는 교육 이념이다. 2019년 8월 중공 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신시대 학교 사상정치이론 수업의 개혁 및 혁신 심화에 관한 몇 가지 의견(關于深化新時代學校思想政治理論課改革創新的若干意見)』(이하 『의견』)에서 대학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구축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의견』에 따라

1)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상정치교육'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국민교육', '인격교육', '인성교육', '도덕교육', '덕육교육', '태도교육' 등 개념을 사용한다. 중국에서는 이와 같은 인간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사상적·정치적·도덕적 교육으로 개념화하여 '사상정치교육(思想政治教育)'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www.kci.go.kr

2020년 6월 중국 교육부는『대학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구축에 관한 지도 요강(高等學校課程思政建設指導綱要)』(이하『요강』)을 발행하였다.

『의견』과『요강』발표 후 대학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은 중국 고등교육계의 인기 연구 분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해외에서는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에 관한 연구가 극히 적지만 중국에서는 매우 활발한 편이다. 李胡玉(2021:49)에 의하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에 대한 논의는 2016년부터 매년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지금까지도 뜨거운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정일(2022:169)에 의하면 中國知网(CNKI)에서 "課程思政(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을 주제어로 검색한 결과 2019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학술지 논문 20,700편, 학위논문 186편, 학술대회 발표문 410편이 발표되었다. 이 연구들은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이란 무엇인지, 사상정치교육 콘텐츠를 전공 교과목과 어떻게 결부시켜야 할지, 그 함의와 실천 방법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 가운데 사상정치교육을 외국어교육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국 외국어교육계 공통의 관심사가 되었다. 2018년 1월 중국 교육부는『일반대학 학사과정 전공교육의 질에 대한 국가적 기준(普通高等學校本科專業類教學質量國家標准)』(이하『기준』)을 제정하였다.『기준』에서 외국언어문학류(外國語言文學類) 전공교육에 대한 최초의 국가적 기준이 마련되었다.『기준』의 원칙과 규정을 철저히 실행하기 위해 2020년 4월 중국 교육부는『일반대학 학사과정 외국언어문학류 전공교육 지침(普通高等學校本科外國語言文學類專業教學指南)』(이하『지침』)을 출판하였다.『기준』과『지침』에서 외국어 전공의 인재 양성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이는『요강』의 목표와 상통한다. 즉, 외국어교육은 사상정치교육과의 융합을 통해 국가적 정서와 국제적 시야를 가진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2)]

이러한 배경에서 '외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外語課程思政)'이라는 개념이 외국어교육 연구 분야에 도입되었다. 외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이란 사

2) 유영영,「중국 외국어 교육 정책에 따른 한국어 교육의 과제」,『한국언어문화학』제19집(3),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22, p.245.

www.kci.go.kr

상정치이론 수업을 외국어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외국어로 중국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3] 외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에 대한 연구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개념 정립, 달성 경로 모색, 사상정치교육 콘텐츠 개발 등의 주제로 이루어졌다.[4] 이 연구들은 대부분 영어 교과목에 집중되어 있으며 영어를 제외한 기타 외국어 교과목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중에서 비통용어(非通用語)[5] 교과목에 대한 논의가 특히 미흡하다.[6]

현재 중국 대학의 비통용어교육 중에서 한국어교육은 학과 개설 규모, 지리적 분포, 학습자 수, 교수진 구성, 교육과정 다양화, 국제교류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가장 앞서 있으며 영어 이외의 통용어에도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7] 한국어가 이렇게 비통용어 중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은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이 중국 대학 외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을 추진하는 데 있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일환임을 의미한다. 이 중요한 일환의 효율적인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학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고 해당 분야 연구자들의 꾸준한 학술적 탐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비통용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연구가 전반적으로 덜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과 관련된 학술적 움직임을 더더욱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동향 분석은 한국어교육 영역의 연구 실태와 미래 추세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통용어교육 영역의 연구 활성화에도 힘을 보탤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대학 외국어 교과

3) 金紅月·于夢衍, 「高級韓國語听力課程中“課程思政”教學設計与應用探索」, 『中國朝鮮語文』 第2期, 2021, p.34.
4) 劉秀娥, 「外語課程思政研究趨勢与發展分析——基于Citespace的可視化分析」, 『校園英語』 第11期, 2023, p.11.
5) 비통용어란 영어,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일본어를 제외한 기타 소수 외국어를 말하며 한국어가 이에 속한다.
6) 李胡玉, 「文學課程思政教育方案研究」, 『韓國語教學与研究』 第4期, 2021, pp.49-56.
7) 허세립·이인순, 「중국 대학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과제-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한중인문학회, 2021, p.273.

www.kci.go.kr

목 사상정치교육 구축 사업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추어 최근 5년간 한국과 중국에서 이루어진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연구의 현황을 검토하고 앞으로 수행되어야 할 연구 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의 개념 및 내용

본 연구는 중국 대학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연구의 현황을 살피기에 앞서 선행 연구에서 정립한 외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의 함의와 목표를 고찰하고자 한다. 文秋芳(2021:48)은 외국어 교사를 중심으로 수업 내용, 교실 관리, 평가 시스템, 교사의 언행 등을 통해 '입덕수인'의 이념을 실천하고 사상정치교육을 외국어 교과목의 모든 측면에 유기적으로 통합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바른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외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의 함의라고 제시하였다.

이 정의에 따라 유영영(2022:248)은 한국어 교재와 교육과정, 교육 실천에 사상정치교육 콘텐츠를 융합시킴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적 수양, 국가적 정서, 인문과학적 소양, 문화적 자부심, 사회적 책임감 등을 배양하는 것이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의 함의라고 제시하였다. 이암(2022:147)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동시에 사상정치교육을 병행하는 교수 모델이라고 보았고, 마찬가지로 이해영(2022:152)은 한국어 지식 전달과 사상정치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는 수업 방식이라고 보았다. 종합해보면,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이란 한국어교육과 사상정치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하는 개념으로서 사상정치교육 콘텐츠를 한국어 교실에 자연스럽게 녹여 들여 학생들이 한국어로 중국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고 지식과 도덕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www.kci.go.kr

대학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의 내용과 관련하여 『요강』에서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 '중국의 헌법', '직업관 및 직업윤리' 등 5가지 중점적인 콘텐츠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孫有中(2020:47)은 『요강』에서 외국어 교과목에만 해당되는 콘텐츠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의 목표가 기본적으로 『요강』을 따르되 외국어 교과목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외국어교육이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면 외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외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의 목표에 포함하였다. 아울러 『요강』에서 규정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수용하여 다음 4가지 목표를 제안하였다.

영어 교과목을 예시로 들자면 첫째,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핵심 요소를 영어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영어로 중국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이해하고 내재화해야 한다. 셋째,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영어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적 자부심, 도덕적 수양, 국가적 정서, 인문과학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세계 문화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 다원주의 의식, '인류운명공동체(人類命運共同体)'[8] 의식과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정일(2022:179)은 『요강』, 『기준』, 『지침』에서 규정한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콘텐츠를 다음 4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입덕수인':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직업관, 사회적 책임감, 도덕성, 직업윤리이다. 둘째, 국정 현황: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핵심 요소,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중국의 헌법, 신

8) 2017년에 시진핑 주석이 국제연합에 발표한 것으로 각국 국민들이 문화, 정치, 경제, 안보, 생태환경 5개 분야에서 공동으로 노력하여 미래 국제사회를 구축한다는 외교 이념이다.

www.kci.go.kr

시대 중국 이야기이다. 셋째, 자국 문화: 중국어와 중국 문화 지식,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 국가적 정서, 인문과학적 소양이다. 넷째,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세계 문화 의식, 문화 다원주의 의식, 인류운명공동체 의식이다.

孫有中(2020)과 정일(2022)은 각각 외국어 교과목과 한국어 교과목에 입각하여 사상정치교육의 내용을 총 4가지 콘텐츠로 분류하고,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하나의 독립적인 콘텐츠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요강』과 비교하면 孫有中(2020)의 목표 체계에서 '중국의 헌법'과 '직업관 및 직업윤리'의 역할이 매우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연구에서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孫有中(2020)과는 달리 정일(2022)은 『요강』을 따라 '중국의 헌법'과 '직업관 및 직업윤리'를 모두 수용하여 각각 '국정 현황' 콘텐츠와 '입덕수인' 콘텐츠로 분류하여 제시하였으나 분류 기준을 설정한 근거를 밝히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다.

본 연구는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이 외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의 일환이며, 외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이 또한 대학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요강』, 『기준』, 『지침』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하나도 빠짐없이 구현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모든 대학, 모든 학과, 모든 전공의 각 교과목에 적용될 수 있는 『요강』의 5가지 콘텐츠를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의 내용 범주에 일괄 포함하고자 한다. 아울러 『기준』과 『지침』에서 지향하는 인재 양성 목표 즉, 모든 외국어 교과목에 적용될 수 있는 한 가지 특화된 콘텐츠도 내용 범주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를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콘텐츠1	콘텐츠2	콘텐츠3	콘텐츠4	콘텐츠5	콘텐츠6
시진핑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중국우수 전통문화	중국헌법	직업관 직업윤리	상호문화 세계문화

[그림 1]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콘텐츠

www.kci.go.kr

2) 외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관련 연구 동향

중국 대학 교과목 사상정치교육과 관련된 일련의 정책 수립 후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 흐름을 살펴본 연구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어를 비롯한 비통용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연구는 전반적으로 덜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그동안 특정한 외국어만 다룬 연구에 비해 통용어와 비통용어를 가리지 않고 종합적으로 '외국어'에 대해 논의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졌다. 외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선행 연구로는 王雪梅·霍炜(2021), 張明芳(2022), 劉秀娥(2023)가 있다.

王雪梅·霍炜(2021)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발행된 외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 63편을 CNKI를 통해 수집하여 주요 연구 내용에 따라 '입덕수인' 이론 연구, 사상정치교육 콘텐츠 연구, 교육 실천 경로 연구, 교수 효과 평가 연구로 분류하였다. 연도별, 주제별 현황을 검토한 결과 첫째, 외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관련 연구물 수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의 학습 정서, 학습 동기, 학습 전략, 학습 방법 등 학습자 요인 연구와 교사의 지식, 능동성, 정서, 정체성, 역량 등 교사 요인 연구가 결여되어 있다. 둘째, 기존의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연구는 이론적 연구에 편향되어 있으며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의 연구는 주제의 다양성, 방법론의 적절성, 교수진의 전문성 등 3가지 측면에서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張明芳(2022)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발행된 외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관련 연구물 307편을 CNKI를 통해 수집하여 연구 주제에 따라 본질 및 함의 연구, 제안 및 대책 연구, 교육 실천 연구, 교재 개발 연구, 인재 양성 연구로 분류하였다. 방법론별, 내용별, 주제별, 대상별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실증 연구와 평가 연구 결핍, 학습자 요인 간과, 영어 외 교과목 대상 연구 부족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 앞으로 외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의 본질 및 함

www.kci.go.kr

의를 검토하는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 실천에 효과 검증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정부, 학교, 학과, 교사, 학생 등 수행 주체가 다양한 만큼 이 분야 연구 또한 다차원적인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劉秀娥(2023)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발행된 외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 326편을 CNKI를 통해 수집하여 연도별, 저자 및 소속기관별, 주제별로 연구 현황을 고찰하였다. 연도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2020년을 초기 단계, 2021년~2022년을 성장 단계로 볼 수 있으며 2021년부터 이 연구 분야가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별로 볼 때 이 연구들은 크게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입덕수인' 등 이념의 함의를 검토하는 연구와 교수설계, 교육개혁 등 실천 경로를 모색하는 연구로 나누어질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들의 대상을 살펴보면 주로 영어 교과목과 일반대학 학사과정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의 연구 방향으로 학술적 공동체 구축, 연구 주제 심화, 연구 대상 다양화, 통시적 연구 활성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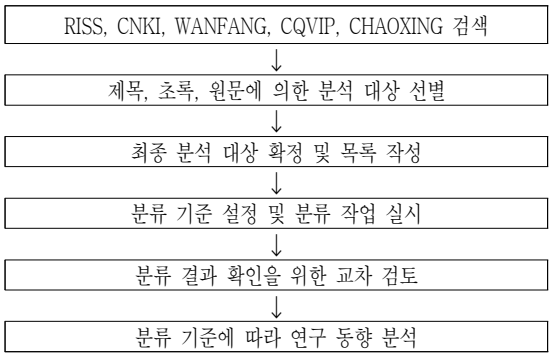
시기에 따라 외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연구의 발전단계를 태동기(2014년~2018년), 모색기(2018년~2019년), 성장기(2019년-현재)로 나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견』과 『요강』의 제정 및 발표는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에 대한 중국 고등교육계의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외국어교육계에서도 『의견』 발표 이후로 외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여 적극적으로 논의해 왔다. 따라서 외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연구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王雪梅·霍炜(2021), 張明芳(2022), 劉秀娥(2023)는 이와 관련된 연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의 연구 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동향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중국 대학 비통용어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한국어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연구의 특징을 파악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연구 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www.kci.go.kr

3. 연구 방법

1) 분석 절차 및 대상

본 연구는 중국 대학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자료 수집, 논문 선별, 목록 작성, 기준 설정, 결과 검토를 단계별로 수행하였다. 동향 분석 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 동향 분석 절차

우선,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知网(CNKI), 万方(WANFANG), 維普(CQVIP), 超星(CHAOXING) 5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분석 대상 자료를 수집하였다. 2023년 12월까지 한국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집하기 위해 RISS[9]에서 "課程思政(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을 검색 주제어로 입력하여 통합 검색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학술지 논문 17편과 학위논문 1편이 검색되었다. 이들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확인하여 한국어교육 분야 학술지 논문 5편을 추출하였다.[10] 다음으

9) RISS(www.riss.kr), 검색일: 2024년 1월 1일.

10) 1차적으로는 학술지 논문 6편이 추출되었다. 그중에서 金紅月·于夢衍(2021)은『중국조선어문』에 게재된 것으로 RISS와 CNKI에서 모두 검색되었다. 본 연구는『중국조선어문』의 발행기관이 중국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라는 점을 고려하여 2차 선별 과정에서 金

www.kci.go.kr

로 “한국어 사상정치교육”과 “신시대 한국어교육”을 각각 주제어로 검색하여 관련 학술지 논문 2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도출한 7편 논문의 참고문헌 목록을 확인하여 관련 학술지 논문 4편과 학술대회 발표문 1편을 분석 대상에 추가하였다.[11] 한국 측 연구물 수는 12건으로 집계되었다.

다음으로 2023년 12월까지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집하기 위해 CNKI, WANFANG, CQVIP, CHAOXING[12]에서 순차적으로 “課程思政 韓語”, “課程思政 韓國語”, “課程思政 朝鮮語”, “思政 韓語”, “思政 韓國語”, “思政 朝鮮語”를 검색 주제어로 입력하여 통합 검색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4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각각 89편, 79편, 46편, 221편의 연구물이 검색되었다. 이들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확인하여 각각 69편, 66편, 43편, 112편의 연구물을 추출하였다. 그중에서 원문이 제공되지 않는 논문 3편과 중복 검색된 논문 165편을 제외하여 학술지 논문 119편, 학술대회 발표문 1편, 학술적 신문 기사 2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논문의 참고문헌 목록을 확인하여 관련 학술지 논문 1편과 학술대회 발표문 1편을 분석 대상에 추가하였다.[13] 중국 측 연구물 수는 124건으로 집계되었다.

한·중 양측 연구물을 합하여 최종적으로 총 136건의 연구물을 분석 대상 자료로 확정하였다. 그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紅月·于夢衍(2021)을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분류하였다.

11)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관련 연구물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분야의 연구 경향성을 보다 세밀하게 포착하려면 학술지 논문만큼의 수준을 지닌 학술대회 발표문도 분석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대회 발표문 중에서 허세립·이인순(2021)은 학술지 논문의 기본적인 구성을 갖추고 연구 성과의 참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12) CNKI(www.cnki.net), WANFANG(c.wanfangdata.com.cn), CQVIP(lib.cqvip.com), CHAOXING(qikan.chaoxing.com), 검색일: 2024년 1월 1일.

13) 王梅(2023)와 趙萍(2023)은 중국영화예술연구센터에서 정기 발행하고 있는 신문 『中國電影報』의 학술적 이론 연구 칼럼인 『理論』에 등재되었으므로 학술지 논문으로 취급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발표된 학술대회 발표문 중에서 韓榮(2023)과 王嘉鎔(2023)은 학술지 논문의 기본적인 구성을 갖추고 연구 성과의 참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www.kci.go.kr

[표 1] 분석 대상 목록

한국측 연구물 (12편)	왕사우·장문이(2022), 유영영(2022), 이암(2022), 이해영(2022), 정서영·신사명(2022), 정일(2022), 지수용(2021), 최미란(2022), 허세립·이인순(2021), 홍금주(2023), 张会梅·唐颖聪(2023), 张欣(2023)
중국측 연구물 (124편)	曹丽丹(2022), 陈楚(2020), 陈荣·孙雪琴(2022), 崔美花(2021), 崔妙时·崔奥飞(2022), 单晨晖(2022), 邓丽娜·侯苏庭·熊柳慧子·裴金梅·李情花(2021), 邓丽娜·熊柳慧子·侯苏庭·裴金梅(2021), 邓晓正(2021), 丁莹(2020), 董晓洋(2019), 杜艳花(2020), 范凡(2022), 冯倩(2022), 公婧媛(2022), 韩荣(2023), 韩银实(2021), 韩银实(2022), 郝曦光(2023), 胡娜(2020), 姜宝有(2022), 姜健·冯雨婷·李妍妍·尚佳颀(2023), 姜美含(2023), 金贵花·金铭(2022), 金红月·于梦衍(2021), 金莲玉(2023), 金香(2022), 金艳玲(2021), 金英子·杨宇峰(2020), 李海燕(2019), 李海燕(2022), 李胡玉(2021), 李娟(2022), 李美英(2021), 李美英·刘洋(2023), 李婷(2019), 李英·赵雨欣·元美花(2023), 李英善(2022), 李雨威(2019), 刘芳(2021), 刘辉(2022), 刘丽娜(2020), 刘婷(2022), 刘潇潇(2020), 刘燕(2023), 吕翌炫(2022), 马梵栀(2021), 梅娟(2021), 南燕(2022), 欧阳敏慧·焦斌(2021), 庞双莉(2021), 朴银爱(2021), 朴正实(2021), 秦广兰(2020), 秦广兰(2023), 申延子(2023), 申延子·闫钰卓(2022), 盛辉(2022), 盛辉(2023), 史欣艳(2022), 孙华敏(2020), 孙静(2022), 谭礼玥·易琳(2021), 唐文婷(2020), 田玉(2023), 王爱云(2019), 王丹(2020), 王嘉镕(2023), 王梅(2022), 王梅(2023), 王思洋(2023), 王秀伟(2021), 王雪(2021), 王雪(2022), 王艳(2021), 王洋(2020), 王月菲(2020), 吴祥彦(2020), 谢范范(2021), 谢晓洁·李英·卢新颖·元美花(2023), 邢心秀(2021), 徐春喜·金银子(2021), 徐春喜·宋英华(2021), 徐花(2021), 徐云飞(2021), 玄晓婷(2022), 鄢妮(2019), 闫钰卓(2019), 闫钰卓(2020), 闫钰卓(2021), 严英爱(2020), 颜小学(2023), 杨婷婷(2020), 杨婷婷(2021), 杨婷婷(2022), 姚巍(2023), 易超·汤嘉美·全永根(2022), 于美灵(2022), 张博研·金英子(2022), 张春实·金春子(2021), 张来霞(2019), 张来霞(2021), 张来霞(2022), 张楠·李美英(2021), 张婷(2020), 张晓宇(2021), 张晓宇(2022), 张艺(2019), 张英美·高源(2021), 张雨婷(2023), 章叶(2020), 赵海波(2020), 赵红霞(2022), 赵萍(2022), 赵萍(2023), 赵萍·孙波(2022), 赵歆童·朴正实(2022), 郑冬梅·陈翘楚(2022), 钟佳美·钱旭琪·朱苏敏(2022), 周杨(2021), 朱曼曼(2022), 朱晓玲(2020), 朱逸雯(2019), 宗艳艳(2022)

2) 분류 기준 및 방법

본 연구는 중국 대학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을 고찰하기 위해 동향 연구의 일반적인 분류 기준 즉, 발행 연도, 논문 유형, 연구 주제에 따라 분류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위의 [표 1]에 제시된 분석 대상 목록의 발행 연도를 확인한 결과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관련 연구물이 2019년에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따라서 발행 연도에 따른 분류 기

www.kci.go.kr

준을 2019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로 설정하였다. 한편, 수집된 분석 자료 중에 학위논문이 결여되어 있으며 학술대회 발표문과 학술적 신문 기사의 경우 모두 학술지 논문과 동일한 자료 유형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논문 유형에 따른 분류 작업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연구 주제에 따른 세부적인 분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분석 대상 논문 136편의 제목과 주제어 목록을 추출하여 어휘 빈도수를 도출하였다.[14] 분석 결과를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분석 대상 주제어 출현 빈도

교과목	234	사상정치교육	227	한국말	105	한국어	62
조선어	60	교수	54	교육	50	도입	39
고등교육기관	38	탐색	36	문화	33	연구	27
실천	26	전공	25	경로	22	교육개혁	21
콘텐츠	18	3년제	18	고등직업대학	17	교재	16
이념	16	교수설계	16	외국어	14	구축	14
전략	13	융합	13	전공과목	12	응용	12
강독	11	탐구	11	교수모형	10	미디어	10
교실	9	문학	8	번역	8	읽기	8
통합	8	발전	7	현황	7	직업	7
외국어교육	6	상호문화	6	교수법	6	통역	6
고급	6	제2외국어	5	중급	5	초급	5
중외합작교육	4	4년제	4	듣기	4	내용	4
학급	3	학습자	3	인재양성	3	방안	3
함의	3	시험문제	2	학습전략	2	목표	2

[표 2]에 제시된 주제어를 참고하여 본 연구는 주제별 세부적인 분류에 있어서 '교육일반', '교육내용', '교수학습'이라는 3가지 범주를 설정하였다. 우선, '교육일반'에는 총 4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이란 무엇인지 그 '이념', '함의', '본질' 등을 논의하는 '교육이론'이다. 둘째,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의 '발전' 과정, 수행 '현황' 등을 파

14) 3D워드클라우드(www.wenziyun.cn), 검색일: 2024년 1월 1일.

www.kci.go.kr

악하는 '교육현황'이다. 셋째, '전공', '학급'을 단위로 '교실' 안과 밖에서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을 실천하는 '교육관리'이다. 넷째, 덕을 갖춘 한국어 인재 육성의 '목표'와 '방안'을 검토하는 '인재양성'이다.

'교육내용'은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므로, 한국어 교실에 '융합' 가능한 사상정치교육 '콘텐츠'를 선정하거나 조직하는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한편, [표 2]에 제시된 주제어 중에서 '교수학습'에 속하는 요소들이 비교적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탐색', '실천', '구축', '탐구' 등을 통해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의 '경로'를 모색하는 '교육개혁'; 혁신적인 '교수모형', '교수법' 등을 고안하는 '교수설계'; 사상정치교육 콘텐츠 개발에 적합한 한국어 '교재'; '시험문제'와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의 수행 효과를 알아내는 '평가'; '교수', '교육'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요인'; 실천의 주체인 '학습자'의 '학습전략'을 비롯한 '학습자요인'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표 2]에는 '조선어', '3년제', '고등직업대학', '제2외국어', '중외합작교육', '4년제' 등과 같은 한국어 전공교육과 비전공교육 관련 주제어들이 제시되어 있다. 중국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정은 크게 전공 교육과정과 비전공 교육과정으로 양분될 수 있다. 전공 교육과정은 다시 4년제 대학 조선어학과의 전공 교육과정과 3년제 대학 응용한국어학과의 전공 교육과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비전공 교육과정에는 외국어를 제외한 다른 전공자를 위한 교양 한국어 교육과정, 한국어를 제외한 다른 외국어 전공자를 위한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 그리고 중외합작 교육기관[15]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15) 중외합작교육(中外合作辦學)이란 중국 대학과 외국 대학이 교육 협력을 이루는 뜻으로 중국 내에서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국제적 복합형 인재를 공동으로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을 말한다. 중국 교육부 중외합작교육 홈페이지(https://www.crs.jsj.edu.cn)에 의하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 한국 대학과 합작 중인 중외합작 교육기관이 총 224개, 신입생 모집 규모가 총 20,716명에 이르렀다. 이들 기관에서 공학, 예체능, 의학을 비롯한 다양한 전공자를 위한 특화된 한국어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www.kci.go.kr

한국어 교육과정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그동안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연구도 다양한 학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를테면 4년제와 3년제 대학의 한국어학과,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16]의 한국어 비전공자, 중외합작 교육기관 내 한국어 비전공자 등을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의 대상으로 삼아 다각적으로 접근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연도별, 주제별 연구 동향과 함께 과정별 연구 동향도 살펴보고자 한다. 과정별 세부 항목으로는 앞서 언급한 각 교육과정의 유형 즉, '조선어', '응용한국어', '교양한국어', '제2외국어', '중외합작한국어' 등 5가지가 꼽혔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사상정치교육 콘텐츠의 한국어 교실 적용에 주안점을 두어 사상정치교육론 대신 한국어교육학적인 시각으로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연구의 동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위의 [표 2]에 제시된 주제어를 보면 '읽기', '듣기', '통합'[17] 등과 같은 '언어기능' 관련 주제어뿐만 아니라 '문화', '문학', '강독'[18], '번역', '상호문화', '통역' 등과 같은 '언어교육요소' 관련 주제어도 등장하였다. 사상정치교육 콘텐츠와 외국어교육 콘텐츠의 유기적인 융합은 외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의 근본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도 역시 한국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자연스럽게 연계되어야 하고 한국어 발음교육, 어휘교육, 문법교육, 문화교육, 문학교육, (통)번역교육과 원활하게 통합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연도', '과정', '주제'에 따른 연구 동향에 이어 '언어기능'과 '언어교육요소'에

16) 중국의 전문대학은 이론교육을 치중하는 고등전문학교(高等專科學校)와 직업교육을 치중하는 고등직업대학(高等職業學院)으로 구분된다.

17) 중국 대학에서 개설된 외국어 교과목 중에 언어 기능을 통합하여 교수하는 과목이 있다. 예를 들어 「감상·청해·회화(視听說)」은 듣기와 말하기 통합, 「독해·작문과정(讀寫教程)」은 읽기와 쓰기 통합 과목이다.

18) 「강독(精讀)」 과목은 중국 대학 한국어 교과목의 한 종류로서 흔히 '기초한국어', '종합한국어', '한국어강독'이라는 과목명을 사용한다. 학년에 따라 '초급한국어', '중급한국어', '고급한국어'로 나누는 경우도 있다. 이 과목에서 주로 발음, 어휘, 문법 등 언어 지식을 종합적으로 교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강독'을 '언어교육요소'와 관련된 주제어로 분류하였다.

www.kci.go.kr

따른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고급', '중급', '초급' 등과 같은 학습자 수준 관련 주제어도 [표 2]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을 실천할 때 학습자의 언어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분석 대상 중에 수강생들의 한국어 수준에 따라 한국어 교과목을 등급별로 나누어 각 등급에 맞는 사상정치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 연구들은 학습자 수준에 따라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탐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준'이라는 분류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여 학습자 수준에 따른 연구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 대상 분류 기준을 다음 [표 3]과 같이 확정하였다.

[표 3] 분석 대상 분류 기준

연도	2019년 ~ 2023년	
과정	조선어, 응용한국어, 교양한국어, 제2외국어, 중외합작한국어	
주제	교육일반	교육이론, 교육현황, 교육관리, 인재양성
	교육내용	내용선정, 내용조직
	교수학습	교육개혁, 교수설계, 교재, 평가, 교사요인, 학습자요인
언어기능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말하기, 읽기·쓰기	
언어교육요소	발음, 어휘, 문법, 문화, 문학, (통)번역, 종합	
수준	초급, 초·중급, 중급, 중·고급, 고급, 전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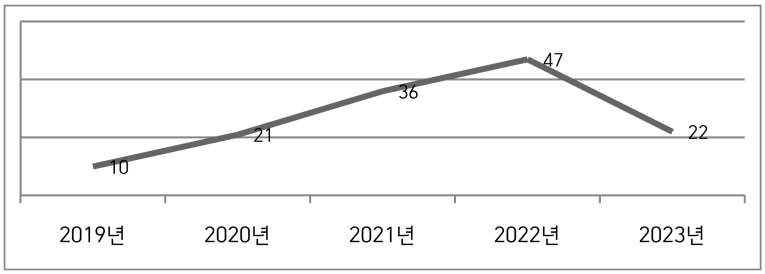
www.kci.go.kr

4. 분석 결과 및 논의

1) 연도 및 과정별 연구 현황

(1) 연도별 연구 현황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연구는『의견』이 발행된 2019년부터 2023년 12월 현재까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5년간 총 136편의 논문이 축적되었는데 연도별 연구 현황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연도별 연구 현황(단위: 편)

한국어교육과 사상정치교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한국어교육 연구자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과제이다.『의견』,『요강』,『기준』,『지침』이 연달아 발표되면서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에 대한 열띤 토론도 지속되어 왔다. [그림 3]을 보면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연구는 2019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에 정상에 이르렀다가 점차 가라앉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연구처럼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연구도 비교적 늦은 시기에 시작되었다. 2019년에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2022년까지는 매년 뚜렷한 양적인 성장을 이루다가 최근 들어 주춤

www.kci.go.kr

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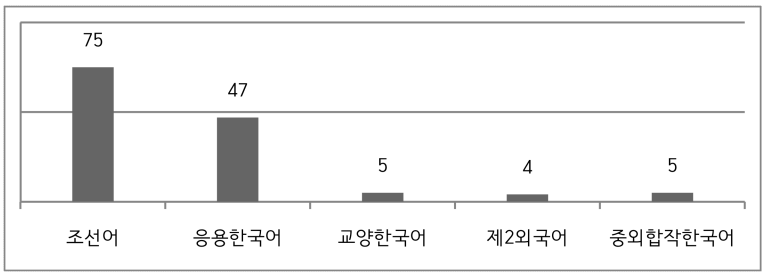
이는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이 2022년까지는 뜨거운 화두로서 주목받다가 최근에는 식어가는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2020년부터 관련 연구물이 연간 20편 이상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이 여전히 화두가 되는 연구 영역으로서 연구자들의 관심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연구 영역은 중국의 외국어교육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정책 변화에 따른 연구 방향 전환도 향후의 연구물 수 증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 산출된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관련 연구물 수가 영어를 비롯한 통용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연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은 현 단계에서 중국 대학교육의 중요한 교육적 과제이자 신시대 인재 양성의 필연적 요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어 교과목에 사상정치교육을 접목시키는 경로, 그 경로를 현실화하는 방안, 그 방안을 한국어 교실에 적용하는 양상, 그리고 교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점 등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부단히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과정별 연구 현황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 대학의 한국어 전공 과정에는 4년제 대학 조선어학과의 전공 과정과 3년제 대학 응용한국어학과의 전공 과정 두 종류가 있다. 비전공 과정에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양 한국어 과정,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과정, 그리고 중외합작 교육기관에서 개설되는 특화된 한국어 과정 세 종류가 있다. 다음 [그림 4]는 과정에 따른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연구의 현황이다.

www.kci.go.kr



[그림 4] 과정별 연구 현황(단위: 편)

[그림 4]에 따르면 조선어학과와 응용한국어학과의 전공과목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대학의 한국어교육은 전공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어학과의 전공 과정을 다룬 연구가 전체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연구 중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4년제 대학 조선어학과의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논의해 왔다.

한편, 劉秀娥(2023:14)는 외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연구의 대상으로 3년제 전문대학이 4년제 일반대학에 비해 관심을 덜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고등전문학교와 고등직업대학은 인재 양성에 있어서 일반대학과 다른 목표를 지향하고 교수학습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외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연구가 더 많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일반대학의 한국어교육은 학습자의 언어적·문학적 능력 함양에 더 중점을 둔다면, 전문대학의 한국어교육은 직업 수요에 맞는 응용형 인재 양성에 더 중점을 둔다.[19] 따라서 응용한국어학과의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실천도 조선어학과와 다른 경로로 구현될 수 있다. 앞으로 응용한국어학과의 교과목 사상정치교육과 관련해서는 더욱 많은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그림 4]를 보면 '교양한국어', '제2외국어', '중외합작한국어'를 대상

19) 金日平,「淺談高職院校韓語教學的困境与出路」,『蘭州教育學院學報』第30期, 2022, p.77.

www.kci.go.kr

으로 한 연구가 극히 적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교양교육, 제2외국어교육, 전공별 특화교육 등은 전공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학자들의 관심을 많이 끌어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비전공교육도 중국 대학 한국어교육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한국어의 위상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교양 한국어의 교육 목적은 학문 목적이나 직업 목적이 아니라 일반 목적이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과 사고력 향상, 일정한 어휘와 문법을 학습하여 기초적인 회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그 교육 목표이다.[20] 학교마다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교양 선택과목으로서 한 학기에만 개설된다. 이처럼 교양교육의 목표와 학습 기간이 전공교육과는 전혀 다르다. 그리하여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이념이 도입된 교양 한국어 교실은 한국어 전공 교실과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張明芳(2022:25)은 교양 영어와 영어 전공의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연구를 비교하였는데, 두 과정의 연구 초점이 각기 다른 데에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혜·교우박(2021:219)은 한국어 교양과목의 수강 신청자도 많고 강의 담당 교원도 많기 때문에 교양과목을 연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연구의 대상으로 전공과목뿐만 아니라 교양과목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제2외국어과목에 속하는 한국어 교과목은 외국어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네 학기 동안 연속으로 개설되는 전공 필수 과목이다. 따라서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은 일종의 부전공교육으로서 교양 한국어교육과 구별된다.[21] 외국어대학의 학생들은 제2외국어를 이수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제2외국어 실력을 갖추고 제2외국어 대상국의 문화도 많이 알 수 있다. 그중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배운 한국어 어휘와 문법, 그리고 한국 문화로 구어 의사소통을 하는 데 가장 관심이 많다.[22]

---

20) 조군아, 「중국 대학의 교양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pp.41-12.

21) 곽령, 「중국 4년제 대학의 한국어 교육 문제점과 새로운 교육 모델의 모색」, 『한중인문학연구』 제67집, 한중인문학회, 2020, p.20.

www.kci.go.kr

이러한 제2외국어과목도 수강 인원수가 적지 않아 중국 대학교육에서 한국어 교육이 지니는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교양과목과 함께 제2외국어과목도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연구의 대상으로 폭넓게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외합작 교육기관에서는 공학, 예술학, 의학을 비롯한 전공의 학습자를 위한 전공별 특화된 한국어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데 이 과목들도 주목할 만한 연구 대상이다. 『의견』에서는 "중외합작 교육기관에서의 사상정치이론과목 구축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그 근거는 중외합작 교육과정의 독특한 운영 방식 즉, 'X+Y' 모형에서 찾을 수 있다. 'X+Y' 모형은 중외합작 대학교육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되는 교육과정 운영 방식으로 전반 X년은 중국 대학에서, 후반 Y년은 외국 대학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2-캠퍼스(双校園)' 제도를 가리킨다.

이 모형에서 학생들의 대학 수학 기간은 본토 학습 기간과 해외 유학 기간으로 양분될 수 있다. 일반대학의 전일제 전공과 비교할 때, 본토 학습 기간에 학생들이 이수하는 사상정치이론과목 시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나중에 해외로 유학 가면 더더욱 사상정치교육을 받기 힘들다. 또한, 중국 교육부의 규정에 따르면 본토 학습 기간에 외국 대학의 교원이 정기적으로 현지에 파견되어 1/3 이상의 전공과목을 강의해야 한다. 외국 대학의 교원들은 중국의 국정과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전공과목 사상정치교육을 실천하기에 역량이 제한될 수 있다.[23] 학생들도 수업 시간에 외국인 교사로부터 외국의 이데올로기와 주류 사상을 입력받으면서 다른 문화와 다른 가치관에 부딪히게 된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심리적 변화와 가치관의 전향은 사상정치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해외 유학 기간에 학생들은 심각한 문화 충격을 겪고 복잡한 사회적 환경

22) 김순녀·맹강, 「교양 한국어 교재 개발에 대한 교수자 인식 연구」, 『교양교육과 시민』 제3집, 교양교육연구소, 2021, p.100.

23) 陳春慧, 「中外合作辦學項目課程思政建設研究」, 『广東職業技術教育与研究』 第3期, 2021, p.178.

www.kci.go.kr

에 직면하게 된다. 외국 대학에서는 국내 교과와 같은 사상정치이론과목을 개설하지 않기 때문에 사상정치교육의 부재는 그들의 바른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형성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24] 그러므로 중외합작 교육기관의 학생들을 중국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고 중국 목소리를 해외로 전파하며 중국과 외국 간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다리'로 육성하려면 중외합작교육의 특성에 맞는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실시는 필수적이다.

몇몇 선행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중외합작 교육기관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전일제 대학 학습자 대상 연구와 비교하면 그 수가 매우 제한적이다. 중외합작교육의 특수성과 사상정치교육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앞으로 중외합작 교육기관 전공별 한국어 과정도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 부상되어야 한다.

2) 주제별 연구 현황

연구 주제에 따라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연구 136편을 분류한 결과 '교육일반' 영역은 5편, '교육내용' 영역은 6편, '교수학습' 영역은 125편으로 집계되었다. 주제별 연구 현황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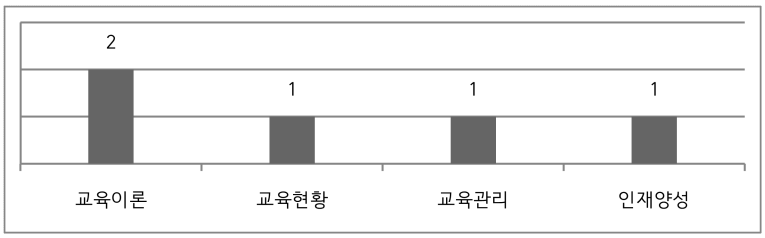
[그림 5] 주제별 연구 현황(단위: 편)

24) 胡佩瑤·晏柯·曹斯靚, 「課程思政理念下中外合作辦學項目課堂教學問題硏究」, 『中國科技期刊數据庫(科硏)』 第6期, 2022, p.86.

www.kci.go.kr

(1) '교육일반'의 하위 주제별 연구 현황

'교육일반' 관련 연구물 5편을 하위 주제에 따라 다시 '교육이론', '교육현황', '교육관리', '인재양성' 4가지 영역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세부 영역별 연구 현황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 6]과 같다.



[그림 6] '교육일반'의 하위 주제별 연구 현황(단위: 편)

'교육이론' 관련 연구로는 鄧曉正(2021)과 金英子·楊宇峰(2020) 2편이 있다. 鄧曉正(2021)은 교과목 사상정치교육과 비통용어 전공 인재 양성 목표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비통용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의 목표 달성에 제한을 주는 요인을 교육과정, 교재, 교수법, 교사, 학습자, 국가(지역) 등 측면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뉴미디어 시대 비통용어 전공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구축의 단계별 목표를 정립하였다. 金英子·楊宇峰(2020)은 한·중 번역 수업에 사상정치교육 콘텐츠를 융합시켜야 할 필요성과 요구를 논하면서 번역교육에서의 사상정치교육 실천 방법으로 교수 이념의 융합, 교수 내용의 융합, 교수 방법의 융합, 교수 평가의 융합 등 4가지 수단을 고안하였다.

'교육현황' 관련 연구로는 姜美含(2023) 1편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교육이론' 관련 연구가 이론적 설명 위주로 진행되어 교육 현장의 실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중국 3년제 대학 응용한국어학과의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에서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의 실시 상황을 조사하고 그 실태를 살펴보았다.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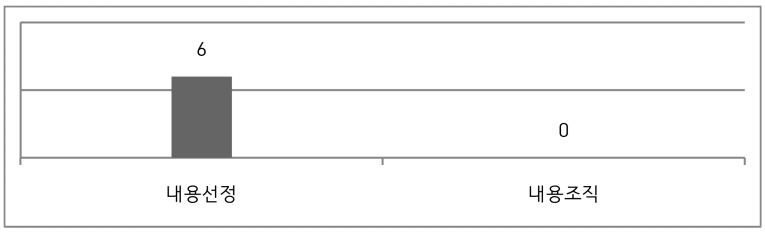
www.kci.go.kr

경험, 내용, 접근법, 효과 등 5가지 측면을 조사함으로써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의 현황을 고찰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교육관리' 관련 연구로는 陳楚(2020) 1편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중등직업대학 응용한국어학과 재학생의 직업 소양 제고를 위한 '학급 문화'의 구축 전략을 모색하였다. 陳楚(2020:179)에 의하면, 중등직업대학 학생들의 직업 소양 육성을 중요시해야 하며, 한국어 학급을 관리하는 데 사상정치교육은 필수적이다. 사상정치교육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 관리의 면에서 '학급 문화'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재양성' 관련 연구로는 張英美·高源(2021) 1편 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기준』과 『지침』에 따른 4년제 대학 조선어학과의 인재 양성 목표와 규모, 그리고 교육과정 체계를 재조명하였다.

(2) '교육내용'의 하위 주제별 연구 현황

'교육내용' 관련 연구물 6편을 하위 주제에 따라 다시 '내용선정'과 '내용조직' 2가지 영역으로 세부화할 수 있다. '내용선정' 관련 연구로는 鄢妮(2019), 吳祥彦(2020), 韓銀實(2022), 南燕(2022), 정서영·신사명(2022), 최미란(2022) 6편이 있고 '내용조직' 관련 연구는 아직 없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7]과 같다.



[그림 7] '교육내용'의 하위 주제별 연구 현황(단위: 편)

www.kci.go.kr

앞의 [그림 1]은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콘텐츠로 (1)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2)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3)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 (4) 중국의 헌법, (5) 직업관 및 직업윤리, (6) 상호문화 및 세계문화 6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림 1]의 콘텐츠 분류에 따르면 鄢妮(2019)와 吳祥彦(2020)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 상호문화 및 세계문화, 韓銀實(2022)은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상호문화, 南燕(2022)과 정서영·신사명(2022)은 상호문화, 최미란(2022)은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의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그중에서 (3)과 (6)은 사상정치교육 콘텐츠로 가장 많이 다루어졌다. 반면, (2)에 대한 논의는 미진하고 (1), (4), (5)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 『요강』에 의하면 (1)은 사상정치이론교육, (2)는 도덕교육, (4)는 법교육, (5)는 직업교육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중국 고등교육 인재로서 갖춰야 하는 덕목을 충실히 이행하려면 전공교육과 사상정치이론교육, 도덕교육, 법교육, 직업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2)를 교육내용으로 다룬 사례가 극히 적고 (1), (4), (5)를 다룬 사례가 전혀 없는데 이 부분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한편,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의 내용 조직과 관련된 연구가 아직 없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외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내용 체계의 구축 현황을 살펴보면, 崔戈(2019:139)는 외국어 교사가 심층적인 사고를 거치지 않고 사상정치교육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아직 완비된 내용 체계가 구축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常俊躍·李辰超(2020:19)는 기존의 교육내용이 산발적이고 무작위적이라는 점을 짚어내면서 학생들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을 통해 단편적이고 제한적인 내용만 배울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향후의 외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연구 과제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제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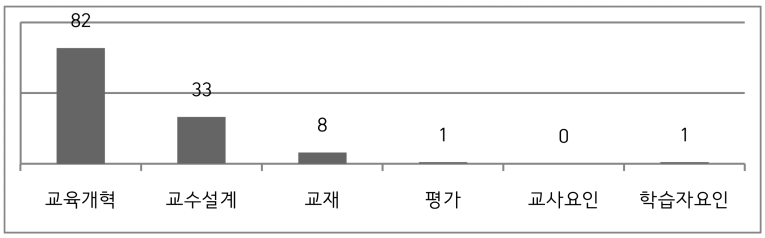
교육내용의 체계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도 기존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연구의 한계점이다.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의 내용 체계에는 총 6가지의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다. 이 콘텐츠들은 사상정치이론교육, 도

www.kci.go.kr

덕교육, 애국교육, 법교육, 직업교육, 상호문화교육 등의 교육 분야에 걸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각 콘텐츠를 어떻게 외국어교육 내용에 효율적으로 통합하는가 하는 문제도 한국어 현장 교사와 연구자들이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사상정치교육 콘텐츠가 도입된 한국어 교실에서 완전한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을 신중하게 선별한 후 그 구성요소를 논리적으로 조직하는 직업이 필요하다. 아쉽게도 교육내용의 조직과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 앞으로 적합한 내용 선정뿐만 아니라 정밀한 체계 구축도 이 연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논제이다.

(3) '교수학습'의 하위 주제별 연구 현황

'교수학습' 관련 연구물 125편을 하위 주제에 따라 다시 '교육개혁', '교수설계', '교재', '평가', '교사요인', '학습자요인' 6가지 영역으로 세부화할 수 있다. 그중에서 교육개혁 연구는 82편으로 가장 많았고, 교수설계 연구는 33편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교재, 평가, 학습자 요인과 관련된 연구는 각각 8편, 1편, 1편으로 극히 적었고, 교사 요인을 다루는 연구는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8]과 같다.



[그림 8] '교수학습'의 하위 주제별 연구 현황(단위: 편)

『의견』, 『요강』, 『기준』, 『지침』 등 일련의 정책의 시행 결과로 전국 대학의 모든 전공과목에서는 사상정치교육과의 융합을 지향하는 교육개혁을 실천하

www.kci.go.kr

고 있다. 특히 외국어교육 분야는 외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의 현주소를 찾고자 뚜렷한 연구 성과를 이룩하였다. 한국어교육 분야도 마찬가지로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의 정착을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탐색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개혁' 관련 연구물이 가장 많이 산출되었다.

교육개혁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각 한국어 교실에 적용될 구체적인 수업 설계의 고안도 뒤따르게 되었다. 『요강』에 의하면 '課程思政(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은 전공교육과 사상정치교육을 결부시키는 것으로 단순히 사상정치이론만 교수하는 '思政課程(사상정치이론과목)'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에 외국어 수업은 "潤物无聲(학생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상정치교육 콘텐츠를 "潛移默化(잠재적으로 감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常俊躍·李辰超(2020:19)는 사상정치교육 콘텐츠를 외국어 수업에 억지로 끼워 넣은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사상정치이론 교사와 외국어 교사가 협력하는 팀티칭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姜健 외(2023:76)는 사상정치이론 교사와 한국어 교사가 한 팀을 이루어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을 실천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교수 모델의 혁신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에 기반한 교수법의 혁신도 중요하다. 분석 대상 논문에서는 '협동 학습(CL, Cooperative Learning)', '과제 중심 교수법(TBLT, Task-Based Language Teaching)', '프로젝트 학습(PBL, Project-Based Learning)', '성과 기반 교육(OBE, Outcome-Based Education)', '산출 기반 접근법(POA, Production-Oriented Approach)', '블렌디드 러닝(BL, Blended Learning)', 'BOPPPS 모델'[25] 등 다양한 외국어 교수법과 최근 유행하는 '1인 미디어(自媒体)', '짧은 동영상(短視頻)' 등 웹 콘텐츠, 그리고 '가상 현실(VR, Virtual Reality)' 기술을 활용한 교수법을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에 적용하고자 시도하였다. 향후의 교수설계 연구는 자

25) 'BOPPPS'란 도입(Bridge), 목표 제시(Objective), 사전 평가(Pre-assessment), 참여 학습(Participatory Learning), 사후 평가(Post-assessment), 정리(Summary) 여섯 단계로 구성되는 교수법이다.

www.kci.go.kr

연스러운 사상정치교육 콘텐츠 도입, 학제 간 교육 협력 시스템 구축, 혁신 교수법 탐색 및 효용성 검증 등의 방향으로 연구 주제를 심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개혁과 교수설계에 비해 교재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었다. 이암(2022:164-165)에 의하면, 기존의 대학 한국어 교재는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이념 결핍, 사상정치교육 콘텐츠와의 융합 불충분 등 문제로 인해 신시대 대학 한국어 교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 9월 외국어교수학습연구출판사에서 4년제 대학 한국어학과 학생용 『뉴클래식 한국어 강독(新經典韓國語精讀教程)』 시리즈를 출판하였다.[26] 기존 교재와 달리 이 교재는 학생들에게 민족적 자부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그들의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과 한국어로 중국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27] 분석 대상 논문 중에 于美灵(2022)은 『뉴클래식 한국어 강독』 1, 2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상정치교육 콘텐츠가 한국어 초급 강독 교재에 융합되는 양상을 고찰하였다.

『뉴클래식 한국어 강독』에 이어 2022년 8월 외국어교수학습연구출판사에서 대학(원) 외국어대학 학생용 『현대 중국 이해(理解当代中國)』 시리즈를 출판하였다.[28] 한국어 시리즈는 아직 집필 중이며 『한국어 독해·작문』, 『한국어 강연』, 『한·중 (통)번역』, 『고급 한·중 (통)번역』 총 네 권으로 구성된다. 이 교재는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의 이념으로 집필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교재와 취지가 다르다. 분석 대상 논문 중에 韓榮(2023)은 『고급 중국어 독해·작문』을 사례로 분석하여 출판 예정인 『한국어 독해·작문』 교재의 교실 활용 방안을 설계하였다. 앞으로 교재와 관련된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연구는 于美

26) 2023년 12월 현재 1권에서 5권까지 출판되었다.

27) 張會梅·唐穎聰(2023:104)은 『뉴클래식 한국어 강독』 시리즈가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실천의 우수한 성과물로서 사상정치교육 이념을 반영한 한국어 교재 개발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다고 평가하였다.

28) 제1차 출판 목록에는 영어,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일본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교재만 포함되어 있다.

www.kci.go.kr

灵(2022)과 같이 『뉴클래식 한국어 강독』를 분석하거나 韓榮(2023)과 같이 『현대 중국 이해』를 활용한 수업안을 설계하거나 이들 교재의 집필 방향을 참고하여 새로운 교재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주제를 시도해 볼 수 있다.

'교수학습'의 하위 주제별 연구에서 평가, 교사 요인, 학습자 요인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다. 우선,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의 구축은 사람의 영혼을 조각하는 뜻깊은 교육 사업인 만큼 단기간에 교수 효과를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에 관한 평가 영역의 연구가 극히 적은 실정이다.[29] 그러나 평가는 교육의 중요한 일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연구에 있어서도 역시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金英子·楊宇峰(2020:76)은 사상정치교육 콘텐츠 융합의 실천 방법으로 교수 평가의 융합을 포함한 4가지 측면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어 수업 평가와 사상정치교육 평가가 잘 맞물려 있어야 한다. 분석 대상 논문 중에 '평가' 관련 연구로는 嚴英愛(2020) 1편밖에 없다. 嚴英愛(2020:48-49)는 한국어 중·고급 과목의 시험문제는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사상정치교육 콘텐츠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시험문제는 학생들에게 사상정치교육을 암묵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이다. 인간성과 교훈성을 내포한 문장이나 글을 시험 문항에 삽입하면 사상정치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 유발에 유리하다. 즉, 사상정치교육 콘텐츠가 녹아든 시험문제는 학생들의 바른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형성에 긍정적인 안내 역할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사상정치교육에 대한 평가 결과가 한국어 교사의 사상정치교육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이에 향후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평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기준』과 『지침』에서 요구하는 인재 양성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평가 구인, 평가 기준, 평가 방법, 평가 주체 등 측면에서 평가 체제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 교사와 관련된 연구 현황을 살펴보겠다. 교사 요인을 중점적으로

29) 劉秀娥, 앞의 논문, p.14.

www.kci.go.kr

다룬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연구가 아직 나오지 못한 바이다. 사실상 외국어 교사의 지식, 능동성, 정서, 정체성, 역량 등을 논의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결여되어 있다.[30] 그 이유는 대부분 외국어 교사가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에 대한 인식이 표층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잠재적인 사상정치교육 콘텐츠를 충분히 발굴하지 못한 것이다.[31] 또한, 교사로서 수업 내 사상정치교육뿐만 아니라 수업 외 사상정치교육에도 관심을 가져 학생들로 하여금 지·덕·체가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32]

중국 대학 비통용어 전공의 교수진은 일반적으로 중국인 교사와 외국인 교사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인 교사의 경우 대부분 해외에서 오래 학습한 경력이 있어 그들에게 사상정치의식을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심화시키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외국인 교사의 경우 거의 모든 학급에 걸쳐 수업을 맡고 있어 그들에게 중국의 이데올로기와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33] 결국 외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의 현실화는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교수진 공동의 노력과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들이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수업 참관이나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사상정치교육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사상정치이론 교사와 외국어 교사가 한 팀을 이루어 팀티칭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협력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요컨대, 향후의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연구는 교사 요인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은 방향으로 연구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요인과 관련된 연구로는 학습 전략을 검토한 鐘佳美 외

30) 王雪梅·霍炜, 「高校外語課程思政硏究綜述(2018—2021)」, 『上海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43期, 2021, p.313.
31) 常俊躍·李辰超, 「發揮外語專業自身特殊优勢,促進思政与專業教育深度融合」, 『外語電化教學』 第6期, 2020, p.19.
32) 지수용, 「新時代 한국어학과 학부교육에서의 한국문학 교육을 논함」, 『한국(조선)어교육연구』 제18집,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2021, p.12.
33) 鄧曉正, 「新媒体時代高校非通用語專業的課程思政融合——以朝鮮語(韓國語)專業爲例」, 『教育教學論壇』 第49期, 2021, p.186.

www.kci.go.kr

(2022) 1편밖에 없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외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연구의 공통적인 한계점으로 학습자의 학습 정서, 학습 동기, 학습 전략, 학습 방법 등 학습자 요인과 관련된 연구의 결핍이 꼽힌다. 또한 학습자 요인을 고려한 외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연구가 매우 미흡하며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34] 더욱이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의 함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며 사상정치교육 콘텐츠에 대한 학습 동기 부여가 부족한데, 그들에게는 외국어학습에 집중하고 사상정치학습에 소홀한 경향이 드러나 있다.[35] 그러나 학생은 사상정치교육의 대상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연구는 이러한 현상에 주의를 기울여 학생들이 사상정치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심리적, 정의적, 사회문화적 요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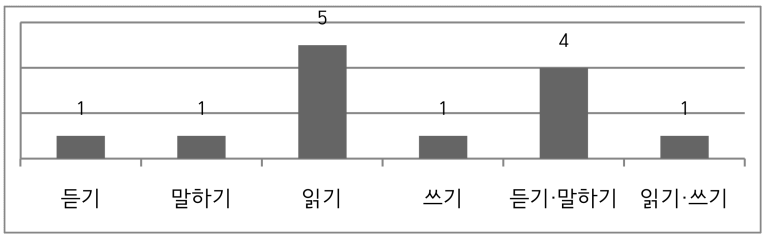
3) 언어 기능, 언어교육 요소 및 학습자 수준별 연구 현황

(1) 언어 기능별 연구 현황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관련 연구물 136편 중에서 특정한 언어 기능을 연계한 연구는 13편, 특정한 언어교육 요소를 다룬 연구는 52편으로 집계되었다. 먼저 언어 기능별 연구 현황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9]와 같다.

34) 張明芳,「高校外語課程思政研究綜述」,『教書育人(高教論壇)』第24期, 2022, p.25.
35) 常俊躍·李辰超, 앞의 논문, p.18.

www.kci.go.kr



[그림 9] 언어 기능별 연구 현황(단위: 편)

[그림 9]를 통해 전반적으로 교과목 사상정치교육과 언어 기능의 연계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 읽기를 연계한 연구가 5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듣기와 말하기를 통합한 연구가 4편으로 그 뒤를 이었다. 듣기, 말하기, 쓰기를 연계한 연구와 읽기와 쓰기를 통합한 연구가 각 1편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적이지만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연구에서 읽기교육 연구와 듣기·말하기 통합교육 연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龐双莉(2021)를 비롯한 읽기교육 연구에 따르면, 읽기교육과 사상정치교육의 적합도가 높아 사상정치교육 콘텐츠를 읽기 수업에 자연스럽게 접목시킬 수 있다. 한국어 읽기 자료는 범위가 넓고 주제가 다양하며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풍부한 사상정치교육 자원을 담고 있다. 읽기교육은 학생들의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읽기교육에 사상정치교육을 더하는 당위성이 있다. 金紅月·于夢衍(2021)을 비롯한 듣기·말하기 통합교육 연구에 따르면, 사상정치교육은 듣기·말하기 수업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듣기 단계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이성적인 시각으로 외국의 이데올로기와 가치체계를 조명하여 바른 문화적 가치관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말하기 단계에서 정확한 한국어 표현으로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홍보하도록 인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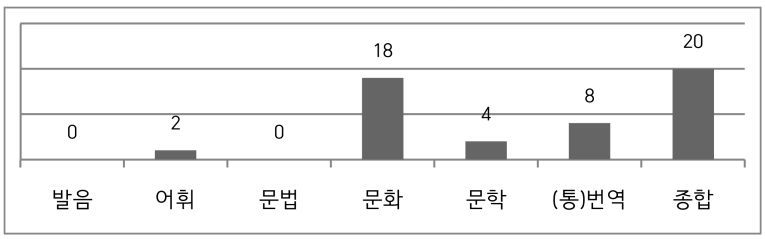
『기준』과 『지침』 발표 후 중국 대학 최신의 외국어교육 목표는 외국어로 중국 이야기를 잘 하자는 데 있으며, 이로써 학생들의 민족적 긍지감과 문화

www.kci.go.kr

적 자신감을 높이도록 한다. 이는 외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언어기능교육이 지니는 중요한 위상을 말해준다. 아쉬운 것은 사상정치교육과 한국어 듣기교육(李雨威, 2019), 말하기교육(張雨婷, 2023), 쓰기교육(鄢妮, 2019), 그리고 읽기·쓰기 통합교육(韓榮, 2023)을 연계한 연구물이 각 1편으로 극히 적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 대학에서 추구하는 외국어교육의 목표와 외국어 인재 양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을 각 언어 기능과 연계하려는 연구가 더욱 전면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듣기·쓰기 통합, 읽기·말하기 통합 등 아직까지 시도되지 않은 언어 기능 통합교육에 대해서는 부단히 탐구되어야 한다.

(2) 언어교육 요소별 연구 현황

다음 [그림 10]은 언어교육 요소별 연구 현황이다. 특정한 언어 기능을 연계한 연구에 비해 특정한 언어교육 요소를 다룬 연구가 비교적 많았다.



[그림 10] 언어교육 요소별 연구 현황(단위: 편)

[그림 10]에 나타난 것처럼 언어교육 요소를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가 20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문화를 단독으로 다룬 연구가 18편으로 그 뒤를 이었다. (통)번역, 문학, 어휘를 단독으로 다룬 연구가 각각 8편, 4편, 2편으로 적은 편이었고 발음, 문법을 단독으로 다룬 연구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교육 요소별 연구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연구에서

www.kci.go.kr

‘문화’는 매우 중요한 언어교육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

중국 대학 한국어 문화교육의 문제점으로 金紅月·于夢衍(2021:34)은 교육 내용이 한국 문화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동안 ‘한국 문화 수입’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중국 문화 수출’을 외면하게 되어 결국 문화 교류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었다. 紀慧敏(2019:6091)과 陶聰(2022:79)은 각각 4년제 대학과 3년제 대학 내 한국어 문화교육의 현황을 고찰하였는데, 그 공통점으로 학생들의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짚었다. 학생들의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姜健 외(2023:76)는 사상정치교육 콘텐츠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문화적 자부심을 키우자는 맥락에서 보면 상호문화교육은 사상정치교육과 맥을 같이 한다.

이른바 상호문화교육은 단순히 외국 문화와 자국 문화의 차별성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문화가 함께 공유하는 공통성, 더 나아가 두 문화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세계 문화의 특성까지 탐구해 나가는 것이다. 즉, 상호문화의 함의에는 대상국 문화, 자국 문화, 세계 각국 문화 3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36] 다른 교과목과 비교하면 외국어 교과목은 담당 교수진 중에 외국인 교사가 유독 많은 과목이다. 이러한 특징은 상호문화교육을 실시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따라서 한국어 문화 수업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중국 문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 문화를 배우고 접하면서 서로 같음과 다름을 찾아내고 새로운 세계 문화를 창조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호문화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에 대해서는 앞으로 꾸준히 연구되어야 한다.

사상정치교육과 (통)번역교육을 연계한 연구 8편을 다시 번역교육 관련 연구 5편과 통역교육 관련 3편으로 나눌 수 있다. 번역교육을 연계한 연구로서 金英子·楊宇峰(2020)은 학생들의 번역 능력 제고와 바른 국가관과 가치관 양

36) 于美灵,「韓國語教材中的課程思政元素探究——以《新經典韓國語精讀教程》1、2爲例」,『東北亞外語研究』第38期, 2022, p.46.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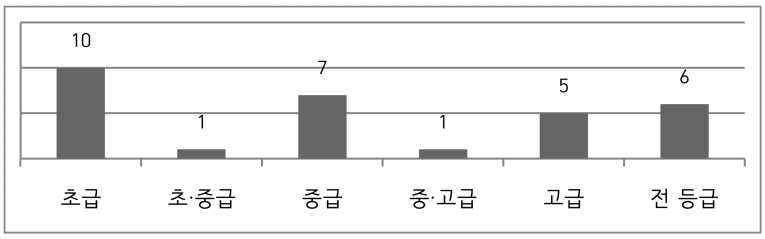
성을 병행하기 위해 중국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요소를 번역 교실에 융합시키는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통역교육을 연계한 연구로서 鄭冬梅·陳翹楚(2022)는 「한중외교통역(中韓外交口譯)」 과목의 수업 내용으로 '중국 이야기', '공식 입장', '시사 이슈' 3가지 콘텐츠를 선정하여 이에 따른 교수 절차를 설계하였다.

문학교육을 연계한 연구로는 李胡玉(2021) 외 3편이 있다. 李胡玉(2021)는 문화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에 반영된 사상정치교육 콘텐츠를 검토함으로써 문학교육을 통한 애국주의교육, 인성교육, 삼관(세계관, 인생관, 가치관)교육의 실제 방안을 마련하였다. 어휘교육을 연계한 연구로서 韓銀實(2021)은 초급 수준 한자어, 周楊(2021)은 사자성어를 교육 대상으로 삼아 어휘 수업에서 사상정치교육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도입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한편, 발음교육과 문법교육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신 발음, 어휘, 문법을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가 20편으로 가장 많았다. 이 연구들은 모두 「한국어강독」 과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목 자체가 가지는 종합성 때문에 발음교육과 문법교육에 대한 논의가 종합적인 논의에 포함되어 간략하게만 제시된 것으로 해석된다.

(3) 학습자 수준별 연구 현황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관련 연구물 136편 중에서 특정한 언어 수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30편으로 집계되었다. 학습자 수준별 연구 현황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11]과 같다.

www.kci.go.kr



[그림 11] 학습자 수준별 연구 현황(단위: 편)

[그림 11]에 의하면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0편으로 가장 많았고 중급, 전 등급,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각각 7편, 6편, 5편으로 그 뒤를 이었다. 초·중급과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각각 1편으로 가장 적었다. 『요강』에 따르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의 구축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며 계획적인 사업이다. 학습자들의 인문학적인 소양 제고는 또한 점차적인 발전 과정이다. 통용어 학습자와 달리 비통용어 학습자들은 대학 전입 전에 목표어를 학습한 경험이 거의 없으므로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을 실천할 때 학습 과정을 입문, 초급, 중급, 고급 4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학습자 수준에 따라 학습 목표, 학습 내용, 학습 방법, 학습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37]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그들의 언어 수준과 학습 배경을 고려한 맞춤형 사상정치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연구 대상을 등급화하여 각 등급의 특성을 반영한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연구가 전반적으로 적은 편이다. 앞으로 특정한 등급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골고루 이루어져야 한다.

37) 鄧曉正, 앞의 논문, pp.187-188.

www.kci.go.kr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과 중국에서 발표된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관련 연구물 총 136건을 수집하여 연도별, 과정별, 주제별, 언어 기능별, 언어교육 요소별, 학습자 수준별로 연구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연도별 추이를 보면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관련 연구물이 2019년부터 나오기 시작하여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3년에 들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0년부터 관련 연구물이 연간 20편 이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영역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과정별 연구 현황을 보면 기존 연구는 조선어학과와 응용한국어학과의 한국어과목에 관심이 쏠려 있고 교양과목, 제2외국어과목 그리고 중외합작 교육기관의 한국어과목에 대한 탐구가 미진하다. 주제별 연구 현황을 보면 기존 연구는 전반적으로 교수학습 영역에 편중되어 있고 교육일반과 교육내용 영역의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교육일반 영역에서 교육이론, 교육현황, 교육관리, 인재양성 관련 연구가 모두 제한적으로만 수행되고 있다. 교육내용 영역에서 내용선정 관련 논의는 다소 있으나 내용조직 관련 논의는 전무하다. 교수학습 영역에서 교육개혁과 교수설계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교재, 평가, 학습자요인 관련 연구가 미흡하며 교사요인 관련 연구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언어 기능별 연구 현황을 보면 읽기와 듣기·말하기를 연계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언어 기능을 연계하여 사상정치교육을 다루는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다. 언어교육 요소별 연구 현황을 보면 문화는 가장 중점적인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고 (통)번역, 문학, 어휘는 다음 순위이다. 문화를 다루는 데 있어 연구 중심이 목표 문화에 편향되어 있고 사상정치교육 콘텐츠로서의 자국 문화와 세계 문화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수준별 연구 현황을 보면 초급, 중급, 고급, 전 등급

www.kci.go.kr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물 수에 차이가 거의 없지만, 전체적으로 학습자의 한국어 등급을 고려한 연구물 수가 그렇지 않은 연구에 비해 훨씬 적다.

향후의 연구 과제로 본 연구는 다음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4년제 대학의 한국어 전공 과정 외에 3년제 대학의 한국어 전공 과정과 전국 대학의 교양 한국어 과정,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과정, 그리고 중외합작 교육기관의 한국어 과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실태 조사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원활한 교육 실행을 위한 다방면의 관리 방안과 인재 양성 방안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셋째, 아직 한국어 교육내용으로 개발되지 못한 사상정치교육 콘텐츠가 있어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이미 개발된 콘텐츠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사상정치이론 교사와 한국어 교사의 협력 교수, 사상정치교육 콘텐츠를 반영한 한국어 교재 개발,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의 효과 평가, 한국어 수업에서의 사상정치학습 양상 등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상정치교육 콘텐츠를 도입한다고 해서 한국어 교실로서의 성격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 교실에서 언어 기능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이다. 앞으로 언어 기능을 연계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섯째, 대상국 문화 외에 자국 문화와 세계 문화에 관한 주제가 폭넓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문화교육뿐만 아니라 (통)번역교육, 문학교육, 어휘교육과 사상정치교육의 결합 가능성도 충분히 탐구되어야 한다.

일곱째, 학습자 수준에 따라 연구 대상을 등급화하여 특정한 수준의 학습자 집단에 적합한 사상정치교육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각 등급 학습자의 사상정치학습 양상을 고찰하는 연구가 전면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이념의 확립은 중국 대학 외국어교육의 개혁을 추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외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연구는 영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중국 외국어교육계에서는 영어 이외의 외국어

www.kci.go.kr

연구 활성화를 호소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연구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영어가 아닌 비통용어 연구 분야의 발전에 힘을 보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가 추후 한국어 교과목 사상정치교육 연구를 수행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www.kci.go.kr

參考文獻

곽령,「중국 4년제 대학의 한국어 교육 문제점과 새로운 교육 모델의 모색」,『한중인문학연구』제67집, 한중인문학회, 2020, p.20.

김순녀·맹강,「교양 한국어 교재 개발에 대한 교수자 인식 연구」,『교양교육과 시민』제3집, 교양교육연구소, 2021, p.100.

유영영,「중국 외국어 교육 정책에 따른 한국어 교육의 과제」,『한국언어문화학』제19집(3),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22, pp.237-259.

이암,「조정기에 있는 중국 대학 한국어 교육의 현황 및 전망-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이중언어학』제89집, 이중언어학회, 2022, pp.145-168.

이해영,「중국의 고급 한국어 통합교재 텍스트 분석」,『한중인문학연구』제75집, 한중인문학회, 2022, pp.143-164.

정서영·신사명,「중국 대학 한국어 전공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수업 연구-'한국 사회와 문화' 교재 개발을 위한 주제 선정을 중심으로-」,『문화와 융합』제44집(1),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pp.93-110.

정일, 「课程思政视角下的中国大学韩国语专业课程改革方向」, 『한중인문학연구』제75집, 한중인문학회, 2022, pp.165-193.

정혜·교우박(2021),「중국 대학 교양 교육에서의 한국어 교육」,『교양교육과 시민』제3호, 숙명여자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2021, pp.205-223.

조군아,「중국 대학의 교양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지수용,「新時代 한국어학과 학부교육에서의 한국문학 교육을 논함」,『한국(조선)어교육연구』제18집,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2021, pp.7-33.

최미란, 「试论'课程思政'教育理念在韩语教学中的应用与探索」, 『중한언어문화연구』제22집, 천진사범대학교 한국문화연구중심, 2022, pp.147-153.

허세립·이인순,「중국 대학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과제-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한중인문학회, 2021, pp.272-289.

常俊跃·李辰超, 「发挥外语专业自身特殊优势,促进思政与专业教育深度融合」, 『外

www.kci.go.kr

语电化教学』第6期, 2020, pp.17-22.
陈楚,「浅析基于职业素养提升的中职班级文化建设策略———以韩语专业班级为例」,『现代职业教育』第6期, 2020, pp.178-179.
陈春慧,「中外合作办学项目课程思政建设研究」,『广东职业技术教育与研究』 第3期, 2021, p.178.
崔戈, 「"大思政"格局下外语"课程思政"建设的探索与实践」, 『思想理论教育导刊』第7期, 2019, pp.138-140.
邓晓正,「新媒体时代高校非通用语专业的课程思政融合——以朝鲜语（韩国语）专业为例」,『教育教学论坛』第49期, 2021, pp.184-188.
韩荣, 「《理解当代中国》多语种系列教材的应用研究——以朝鲜语教材为例」, 『2023年第五届生活教育学术论坛论文集』, 2023, pp.119-123.
韩银实, 「浅谈高校初级韩国语词汇教学中"课程思政"的融入」, 『现代职业教育』第50期, 2021, pp.124-125.
韩银实,「韩国语课程思政内容体系的跨学科拓展路径研究」,『韩国语教学与研究』第4期, 2022, pp.79-82.
胡佩瑶·晏柯·曹斯靓, 「课程思政理念下中外合作办学项目课堂教学问题研究」, 『中国科技期刊数据库(科研)』第6期, 2022, pp.85-88.
纪慧敏, 「高校韩语教育中的跨文化教学策略探究」, 『电脑校园』 第5期, 2019, pp.6091-6092.
金红月·于梦衍,「高级韩国语听力课程中"课程思政"教学设计与应用探索」,『中国朝鲜语文』第2期, 2021, pp.33-43.
金日平, 「浅谈高职院校韩语教学的困境与出路」, 『兰州教育学院学报』 第30期, 2022, pp.77-78.
金英子·杨宇峰,「中韩翻译课程与课程思政的融合与实践」,『韩国语教学与研究』第4期, 2020, pp.73-77.
李胡玉, 「文学课程思政教育方案研究」, 『韩国语教学与研究』 第4期, 2021, pp.49-56.
李雨威, 「"课程思政"融入《初级朝鲜（韩国）语听力》课程教学探索」, 『电脑校园』第5期, 2019, pp.1155-1156.

www.kci.go.kr

刘秀娥,「外语课程思政研究趋势与发展分析——基于Citespace的可视化分析」,『校园英语』第11期, 2023, pp.11-14.
南燕, 「中国的韩国文学教育现状与文学教育体系的重建」, 『当代韩国』 第1期, 2022, pp.104-116.
庞双莉,「基于“课程思政”理念的高校韩语阅读课程教学改革探析」,『高教学刊』第7期, 2021, pp.143-146.
孙有中, 「课程思政视角下的高校外语教材设计」, 『外语电化教学』 第6期, 2020, pp.46-51.
陶聪, 「基于跨文化交际能力培养的职业院校韩语教学」, 『安徽冶金科技职业学院学报』第1期, 2022, pp.79-81.
王嘉镕,「课程思政在韩语精读课程中的融入」,『2023年第三届创新人才培养与可持续发展国际学术会议』, 2023, pp.581-582.
王梅,「民族共同体意识融入韩语影视教育改革策略」,『中国电影报』第11版, 2023, pp.1-2.
王雪梅·霍炜, 「高校外语课程思政研究综述(2018—2021)」, 『上海理工大学学报(社会科学版)』第43期, 2021, pp.309-314.
文秋芳, 「大学外语课程思政的内涵和实施框架」, 『中国外语』 第18期, 2021, pp.47-52.
吴祥彦, 「浅谈高校韩语课堂中的思政教育」, 『山海经：教育前沿』 第16期, 2020, pp.238-240.
鄢妮,「关于将思政教育融入韩语《TOPIK写作》课堂的探索」,『文渊(中学版)』第4期, 2019, p.105.
于美灵,「韩国语教材中的课程思政元素探究——以《新经典韩国语精读教程》1、2为例」,『东北亚语研究』第38期, 2022, pp.38-49.
张会梅·唐颖聪,「国际传播背景下韩国语课程思政教学模式的探索与实践」,『教育教学研究论丛』第1卷, 2023, pp.103-109.
张明芳, 「高校外语课程思政研究综述」, 『教书育人(高教论坛)』 第24期, 2022, pp.23-26.
张英美·高源, 「《国标》与《指南》视域下的朝鲜语专业人才培养模式探索与思考」,

www.kci.go.kr

『韩国语教学与研究』第1期, 2021, pp.69-76.
张雨婷, 「中级朝鲜语会话课程中“翻转课堂”与“课程思政”融合的教学设计与应用探索」,『外语教学研究』第18期, 2023, pp.207-209.
赵萍, 「基于影视教学法的韩国语课程思政教学策略研究」, 『中国电影报』 第11版, 2023, pp.1-2.
郑冬梅,陈翘楚, 「课程思政视域下“中韩外交口译”教学改革构想」,『东北亚外语研究』第39期, 2022, pp.88-94.
周杨, 「课程思政视角下韩语四字成语教学研究」, 『江西电力职业技术学院学报』 第34期, 2021, pp.35-36.

www.kci.go.kr

Abstract

Current Status and Future Issues of Research on Korean Language Courses with Ideological-Political Elements in Chinese Universities

Liu Xiaoxiao · Tian Peiying

Since recent policy announcements in Chinese universities advocate the establishment of Courses with ideological-political elements, the seamless integration of ideological-political education in foreign language courses has become a shared concern of the foreign language education academia in China. On this basis, this study conducts a thorough examination of 136 research articles related to Korean courses with ideological-political elements published between 2019 and 2023 in both Korea and China. The analysis is categorized by year, curriculum type, topic, language skills, linguistic elements, and learners' proficiency. The findings reveal a consistent quantitative growth in research on Korean courses with ideological-political elements until 2022, followed by a recent trend of slowing progress. It proposes several future research directions, including heightened attention to general education, second foreign language education, and Chinese-Korean cooperative education. Additionally, it emphasizes the need for sustained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 thus exploring avenues for class management and talent cultivation. Meanwhile, it calls for the logical organization of ideological-political elements as the teaching content, active discussions on topics of textbooks, assessment, teacher and learner factors, with an increased focus on the interplay of specific language skills. Lastly, it recommends research exploring national and global cultures,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literature, vocabulary, and a comprehensive investigation into the dynamics of ideological-political learning based on learners' proficiency levels in the Korean language.

Key words : Courses with ideological-political elements, Ideological-political education in foreign language courses, China's foreign language education policy, Korean

www.kci.go.kr

language education in Chinese universities, Research trends, Current status and future issues

투 고 일 : 2024. 1. 10. / 심 사 일 : 2024. 1. 15.~ 2024. 2. 15. / 게재확정일 : 2024. 2. 20.

www.kci.go.kr

www.kci.go.kr